

## 사진기, 복사기 수입다변화품목 해제에 대한 대책

오는 99년 1월부터 SLR카메라와 복사기가, 99년 7월부터 DSC 카메라가 수입다변화품목에서 해제된다고 예시되었다. 이에따라 국내업체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응해 대책 및 수출지원방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본협회에서 관련업체 담당자들이 모임을 가졌다.

이에 이날 회의 내용 및 수입다변화 해제이후 업체들이 예상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을 들어보았다.

-편집자 주-

### 〈참 석 자〉

- (주)롯데캐논 김천주 실장
- 대우통신(주) 이상선 팀장
- 삼성항공산업(주) 김현희 과장
- (주)신도리코 박병진 차장
- (주)아남인스트루먼트 유철호 이사
- 코리아제록스(주) 광경호 과장
- 한국광학기기협회 홍계인 전무
- 한국광학기기협회 김영균 부장

수입다변화해제를 앞두고 사진기, 복사기 관련 생산업체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 및 수출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지난 7월 10일 한국광학기기 협회에서 모임을 가졌다.

현재 광학기기 수입다변화 품목으로는 35mm 롤필름용의 사진기, 전자식 복사기 중 보통용지 복사기, 35mm 롤 필름용의 사진기(기타의 것) 등 3가지 품목이다.(표 1참조)

광학기기 전체 생산규모 중 다변화품목이 차지하는 비율은

20.7%(4,187억원)이며 내수 시장은 13.3%(3,094억원)을 유지하고 있고 핵심품목은 콤팩트카메라(LSC)와 보통용지 복사기(PPC)이다.

이에 광학기기의 수입다변화 품목이 해제되면 카메라는 광기술, 전자, 물리, 기계기술의 결정체로 기술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일본에서도 카메라산업을 통한 기술파급효과로 반도체장비, 의료기기, 사무기기, 광응용장치 등 산업전반의 경쟁력 강화요인으

로 작용하였으나 국내 카메라 산업이 위축될 경우 광산업전반에 경쟁력 약화를 유발할 수 있다.

복사기는 생산시 관련 중소기업의 부품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생산이 위축되면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이에 따른 업체들이 제시한 대책으로는 원가절감, 기술개발, 수출확대, 관세조정 등 여러 가지가 제안되었다.

〈표 1〉 광학기기 수입다변화 품목 현황

| HS           | 품 목 명  | 해제 시기      | 비 고 |
|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---|
| 9006 51 9000 | 35mm 롤필름용의 사진기(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파인더를 갖춘 것)   | '98.12.31  | SLR |
| 9009 12 0000 | 전자식 복사기중 보통용지 복사기. 다만, 복사원고 크기 A2 이상의 것과 복사속도 A4 기준 50매/분 이상의 것 및 도서목록 카드 전용 복사기는 제외 | "          | PPC |
| 9006 53 9090 | 35mm 롤필름용의 사진기(기타의 것)  | '99. 6. 30 | LSC |

〈표 2〉 광학기기 수급현황('97년기준)

(단위 : 억원)

| 품목                | 구분 | 공 급    |       |        | 수 요    |       |        | 비 고   |  |
|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|
|                   |    | 생산     | 수입    | 계      | 내수     | 수출    | 계      |       |  |
| 광학기기(A)           |    | 20,264 | 7,780 | 28,044 | 23,238 | 4,806 | 28,044 |       |  |
| 다변<br>화<br>품<br>목 | 사진 | SLR    | 210   | 28     | 238    | 238   | -      | 238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기  | LSC    | 2,038 | 323    | 2,361  | 1,337 | 1,024  | 2,361 |  |
|                   |    | PPC    | 1,939 | 306    | 2,245  | 1,519 | 726    | 2,245 |  |
| (B)               | 계  | 4,187  | 657   | 4,844  | 3,094  | 1,750 | 4,844  |       |  |
| 비중(B/A)           |    | 20.7   | 4.7   | 17.3   | 13.3   | 14.8  | 17.3   |       |  |

(주) ① 환율(\$ : ₩) : '97(951.11), '98(1,300), '99(1,200)

② 광학기기 : HS 9001~9013(9003, 9004 제외)

## 〈수입다변화 해제에 대한 업체들의 대책방안〉

### 1. 원가절감

광학유리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기본관세 8%에서 5%, 향후에는 무세화로 적용을 제안했고, 사진기 및 복사기 부품에 대한 부품규격화 및 공용화 사업추진으로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업체들은 전망했다.

### 2. 기술개발

사진기 및 복사기 핵심기술에 대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자본재전략품목 고시지원을 받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놓았다.

현재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으로 한국광학기기협회가 주관해 '광응용디지털 화상시스템 기술개발' 과제가 추진중에 있으며 신규과제 및 사업도 발굴 중이다.

### 3. 수출확대

해외 광학기기 전시회 공동참가 소모비용지원 및 중소기업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을 통해 수출활로를 찾도록 한다.

### 4. 관세조정

사진기 및 복사기 완제품에 대한 조정관세를 3년간 20%



▲ 사진기, 복사기 국내 생산업체들이 수입다변화품목해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광학기기협회에 모였다.

로 지정해 수입자유화시 국내 산업보호, 저가수입으로 피해방지를 하도록 해야하나 부품의 경우 국산화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수입시 세율을 낮춰 조정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.

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해 고급사진기 특별소비세 부과기준(면세금액)을 조정해 완제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, 관련제품(본체, 렌즈, 후레시)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고, 특별소비세율은 현행 30%

에서 15%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.

### 5. 기타

기타 수입억제방안으로는 사진기 및 복사기 조정관세를 완제품의 경우 제품사용법 안내판, 표시판, 사용설명서 등의 한글화를 지정하고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유통, A/S체제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하는 의견을 제시했다.